

아버지의 자녀가치와 문화성향이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신건호

강남대학교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The effects of father's value of children and cultural orientation on the 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Keonho Shin

Professor,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angnam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아버지의 자녀가치와 문화성향이 자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만3세-5세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286명을 대상으로 자녀가치, 문화성향과 양육참여, 그리고 개인적 특성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아버지의 자녀가치 중 정서적 가치는 양육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도구적 가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아버지의 문화성향 중 집단주의가 개인주의보다 상대적으로 양육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버지의 개인적 특성 중 학력은 양육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와 아버지의 문화성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토대로 추후의 연구와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아버지 양육참여, 정서적 자녀가치, 도구적 자녀가치, 집단주의, 개인주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father's value of children and cultural orientation on the 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Data were collected from 286 fathers on FPI, VOC, and COR, which then were analyzed using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emotional value of children was positively related to the 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but instrumental value of children was negatively related to the 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Second, collectivism had a stronger relationships with the 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than individualism. Third, father's education level was positively related to the 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The above findings imply that father's value of children is an important variables of parenting involvement and cultural orientation is also a good predictor of parenting involvement.

Key Words : 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Emotional value of children, Instrumental value of children, Collectivism, Individualism,

1. 서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전반에 걸쳐 다양하고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넓게는 사회제도의 전반

에서 좁게는 개인의 행동이나 가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나타난다.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 근간인 가족의 제도와 구성원의 역할도 이러한 변화에서 예외가 아니다. 오랜 기간 동안 농업을 기반으로 한 전통사회가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Kangnam University research grant(2017)

*Corresponding Author: Keonho Shin(khshin@kangnam.ac.kr)

Received March 31, 2019

Revised April 30, 2019

Accepted May 20, 2019

Published May 28, 2019

산업화 시대를 거쳐 불과 수십 년 만에 정보화 사회로 변화하였다. 사회적 변화는 가족의 형태와 기능, 그리고 가족에 대한 기대까지도 변화시켰다. 전통 사회에서 여성은 어머니이며 배우자였고, 집안일과 자녀출산 및 양육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였다[1]. 그러나 사회의 변화는 가족 내 성역할의 변화와 함께 자녀양육과 가사일 등으로 규정하고 있던 여성의 역할을 사회로 확장시켰으며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부부역할이 변화하게 되었다[2]. 이러한 변화 중에 극적인 것 중의 하나는 전통 사회와는 달리 현대 사회의 아버지는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점차로 참여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이다[3].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관한 관여와 참여는 단순히 아이를 돌보고 양육하는 배우자를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점보다는 양육참여자체가 아버지와 자녀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양육참여와는 다른 상호작용을 하고 따라서 질적으로 다른 영향을 자녀에게 준다[4,5]. 아버지는 자녀양육참여에서 구체적으로 자녀를 돌보는 역할뿐 아니라 자녀와 놀이, 그리고 운동, 예절의 지도, 애정표시와 훈육역할 등으로 다양하게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고 참여한다[6,7]. 다른 한편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어머니로 하여금 사회와의 단절감을 해소시키는데 도움을 주어 자녀와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친다[8].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양육과 가정의 전반적인 문제를 함께 배우자, 그리고 다른 가족 구성원과 공동으로 해결해나가는 기회를 제공하며 자녀들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며 자녀들의 삶과 성장에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관한 연구들은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자녀의 의사소통과 사회적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 적응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자기조절력과 자기효능감에 정적으로 작용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9,10].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그 자체가 자녀의 발달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는 적극적으로 양육에 참여하는 아버지일수록 온정적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순환적으로 온정적 양육태도를 갖고 있는 아버지일수록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11]. 이러한 결과는 온정적 양육태도의 아버지들은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이것은 아버지 역할에 대한 만족과 자신으로 이어져 온정적 양육태도를

지속시키고 양육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처럼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경험적 결과들을 확인하는 연구들은 무엇이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변인들을 탐색하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양육참여의 선행변인으로 지적된 변인들을 분류해 보면 아버지의 개인적 특성, 부부관계 변인, 자녀특성과 자녀관계 등의 변인으로 구분된다. 아버지의 개인적 변인으로는 연령, 학력, 소득 등의 사회문화적 변인들이 주류를 이루어 왔는데, 자녀양육참여에 대한 아버지의 개인특성변인들의 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아버지의 연령이 자녀의 양육참여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12]와 관련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연구[5]도 있다. 유사하게 아버지 교육수준이 아버지 양육참여에 대해 영향을 준다는 연구[5,13]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14]가 제시되고 있다. 아버지의 소득도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12]와 관련이 없다는 연구[5]로 대별되어 일관된 양상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상이한 연구결과는 아버지의 학력, 연령, 그리고 월수입과 같은 특성변인이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룬 선행 연구들은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에 대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다루는 변인이 자녀가치에 주목하고 있다[15-18]. 자녀가치란 자녀에 대한 부모개개인의 생각으로 자녀를 가짐으로 생기는 손실과 이득에 관한 가치판단이다[19]. 권용은의 연구는 부모가 평가하는 자녀가치를 도구적 가치, 사회적 가치, 그리고 정서적 가치의 하위요인으로 제시하였다[19]. 자녀가치는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긍정과 부정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부여하는 긍정적 가치가 높으면 부정적 가치가 낮아지는데 비하여 한국의 경우 특이하게 자녀에 대한 긍정 가치와 부정 가치가 모두 높은 이중적인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이중적인 결과에 대한 가능한 해석 중의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자녀는 부모의 만족과 기쁨을 갖게 하는 요인이지만, 부모의 자유나 경제 활동에 영향을 주고 때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존재로 인식되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20].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인식하는지에 따라 자녀에 대한 행동에 영향을 준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가치를 낮게 인식한다면 자녀양육에 대한 참여는 소극적이고 양육자체를 부담감으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인식은 자녀양육에서 강압적이거나 권위적인 양육태도를 갖게 하고 양육참여에 소극적인 태도를 지니게 될 것이다. 이에 비해 부모가 자녀가치

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면 자녀양육에 대해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고 양육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져 민주적인 양육태도를 형성하고 양육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게 될 것이다[21]. 아버지의 자녀가치와 양육참여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아버지가 가진 자녀가치의 유형은 양육참여에 영향을 주는 중요 변인으로 지적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아버지의 자녀가치가 양육참여에 중요한 선행변인이라는 것을 가설로 하여 경험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개인적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다른 한편으로 아버지가 속한 사회와 문화의 가치나 규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아버지가 자녀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양육하느냐는 상당부분 그 아버지가 속한 사회의 문화적 가치, 즉 문화성향의 산물이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로 대별되는 문화성향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지의 가치를 전달하고 이를 통해 개인은 자기가 속한 사회가 제공하는 가치와 규범을 사회화 과정을 통해 내재화하게 된다[22,23].

문화성향과 관련한 선행 연구들은 서양사회와 동양사회의 문화성향의 차이를 밝히고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서양사회는 개인주의적 가치를 중요한 지배적 가치로 인식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동양사회는 집단주의적 가치를 중요한 가치로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성향과 자녀의 양육행동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선행의 연구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가치를 가진 개인이 양육행동이나 양육실천에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19].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아버지가 갖고 있는 문화성향이 자녀의 양육참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우리 사회의 문화성향이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지지하는지 또는 지지하지 않는지를 검토하는 중요한 이슈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사회구성원인 아버지가 어떠한 문화성향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 사회 구성원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검토해보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의 가치와 인간관계를 이해하는데 의미 있는 시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주제를 떠오르고 있는 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참여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아버지 참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지적한 변인 중 아버지의 개인적 특성과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에 대한 갖고 있는 가치, 그리고 아버지가 가진 문화성향을 선행변인으로 하여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가치에 따라 양육참여가 달라질 것으로 가정하였다. 아버지가 자녀를 긍정적이고 정서적인 가치의 존재로 지각하는 경우 도구적으로 지각하는 경우보다 양육참여가 높을 것으로 보았다. 아버지의 문화성향에 따라 자녀의 양육참여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즉, 우리 사회에서 아버지가 개인주의적 가치를 가질 때보다 집단주의적 가치를 가질 때 양육참여가 높을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가정을 확인하기 위한 본 연구에서 검토한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아버지의 자녀가치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영향을 줄 것인가?
- 연구문제 2. 아버지의 문화성향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영향을 줄 것인가?
- 연구문제 3. 아버지의 개인적 특성, 자녀가치, 그리고 문화성향이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	Categories	n	%
Age	21-30	2	0.1
	31-40	149	52.1
	41-50	131	45.8
	>51	4	1.4
Education level	High school ≤	30	10.5
	Associate	44	15.4
	Bachelor	158	55.2
	Master	54	18.9
Job	Professional	59	20.6
	Mangement	108	37.8
	Office work	43	15.0
	production worker	6	2.1
	Manual labor	1	.3
	Engineer	22	7.7
	Service	11	3.8
Household income (10,000won)	etc	36	12.6
	200<	9	3.1
	200-300	29	10.1
	300-400	57	19.9
	400-500	70	24.5
	<500	115	40.2
Birth Order	no answer	6	2.1
	First	114	39.9
	Second	109	38.1
	Third	36	12.6
	Fourth or more	27	9.4

본 연구는 경기도 남부지역에 소재한 유아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유아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연구 대상자 35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포하여 각 문항의 응답에서 비교적 성실히 응했다고 평가되는 286명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표에서 보면 응답자의 연령은 31-40세가 52.1%로 가장 높은 비율이 높았고, 교육수준은 대학졸업자가 응답자의 55.2%로 가장 높았으며, 가정의 월 수입은 응답자의 24.5%가 400-500만원으로 나타났다.

2.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문화성향, 그리고 자녀가치를 측정하는 질문지로 구성되었고,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학력, 월수입, 그리고 연령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2.2.1 양육참여(FPI)의 측정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측정하기 위해 이미현의 연구에서 사용한 양육참여척도를 사용하였다[23]. 이 척도는 양육참여를 사회정서지원(SCS), 교육지원(EDS), 공동양육(COS), 자기성장(SFS), 놀이문화지원(PCS)의 5개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각 문항은 Likert식의 5점 척도에서 측정하도록 구성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응답으로 추정된 5개 하위 요인의 내적 합치도(Cronbach α)는 .768-.922로 나타났다.

2.2.2 자녀가치(VOC)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자녀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권용은[19]이 구성한 자녀가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녀가치를 정서적 가치(EMV), 도구적 가치(ISV), 사회적 가치(SCV)의 3개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Likert식의 5점 척도에서 측정하도록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의 응답으로 추정된 내적합치도(Cronbach α)를 보면 정서적 가치 .90, 도구적 가치 .86, 사회적 가치 .88로 나타났다.

2.2.3 문화성향(COR)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문화성향으로 개인주의(IND)와 집단주의(COL) 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Singelis, Triandis, Bhawuk와 Gelfand가 개발한 개인주의-집단주의 질문지[24]를 기초로 만들어 박현경의 연구[24]에 사용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주의-집단주의 가치를 각각 16문항씩 총 32문항을 Likert식의 5점

척도에서 측정하도록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의 응답으로 추정된 내적합치도(Cronbach α)를 보면 개인주의는 .756, 집단주의는 .767로 나타났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관련 변인간의 상관관계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영향을 주는 선행변인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변수 투입법에 의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제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관련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다음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2. Correlation among Variable

Variable	ISV	EMV	SCV	IND	COL
SCS	-.19**	.21**	.018	.16**	.30**
EDS	-.20**	.18**	-.07	.112	.18**
COS	-.22**	.16**	.026	.14*	.15*
SFS	-.09	.074	.028	.032	.18**
PCS	-.18**	.29**	.019	.16**	.17**
TOT	-.22**	.22**	.005	.14*	.24**

* $p < .05$, ** $p < .01$

위의 표에서 자녀가치 중 도구적 가치(ISV)는 양육참여(TOT)와 5개 양육참여 하위요인 중 자기성장(SFS)을 제외한 4개 요인과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p < .01$). 이 결과는 아버지의 자녀가치에서 도구적 가치가 높을수록 자녀의 양육에 참여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 가치 중 정서적 가치는 양육참여(TOT)와 4개 양육참여 하위요인 중 자기성장(SFS)을 제외한 4개 요인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p < .01$). 이 결과는 아버지의 자녀가치에서 정서적 가치가 높을수록 자녀의 양육에 참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가치 중 사회적 가치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양육참여 5개 하위 요인 모두와 유의한 상관관

계를 나타내지 않았다($p>.05$). 문화성향의 요인인 개인주의는 사회정서지원(SCS), 공동양육(COS), 놀이지원(PCS)과 양육참여(TOT)에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 결과는 아버지의 개인주의의 가치가 높을수록 자녀 양육에서 사회정서지원, 공동양육, 놀이지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성향의 또 다른 요인인 집단주의는 양육참여와 양육참여 5개 하위모두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p<.01$). 이 결과는 아버지의 집단주의의 가치가 높을수록 자녀양육에 대한 참여가 의미 있게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결과를 볼 때 집단주의와 양육참여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개인주의보다 높은 경향을 보여준다.

3.2 문화성향과 자녀가치가 자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문제 3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성향의 하위요인인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가치, 그리고 자녀가치 하위요인들을 선행변인으로 하고 양육참여와 5개의 양육참여 하위 요인을 후행변인으로 하여 전변수 투입법(enter method)에 의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양육참여(TOT)에 대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Multiple Regression on TOT

Variable	B	S.E	β	t	R ²	F
CON.	1.694	.438		3.867		
ISV	-.180	.052	-.225	-3.471***		
EMV	.128	.049	.148	2.596**		
SCV	.035	.042	.056	.833		
IND	.105	.076	.078	1.381	.201	8.41***
COL	.280	.098	.168	2.846**		
EDU	.154	.035	.252	4.451***		
INC	.011	.050	.012	.213		
AGE	-.050	.055	-.051	-.907		

* $p<.05$, ** $p<.01$ *** $p<.001$

위의 표에서 보면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양육참여에 대해 자녀가치 중 도구적 가치(ISV)와 정서적 가치(EMV), 문화성향 중 집단주의(COL), 개인특성 중 교육수준(EDU)이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치 중 사회가치(SCV)와 문화성향 중 개인주의(IND), 개인특성 중 수입(INC)과 연령(AGE)은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양육참여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p>.05$). 이러한 결과를 보면 도구적 가치가 높을수록 양육참여가

낮았으며, 정서적 가치와 집단주의,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참여가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양육참여를 하위수준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하위 요인 중 사회정서요인(SCS)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Table 4와 같다. 표에서 보면 양육참여 하위 요인 중 사회정서지원(SCS)에 도구적 가치(ISV)와 정서적 가치(EMV), 문화성향 중 집단주의(COL), 개인특성 중 교육수준(EDU)이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Multiple Regression on SCS

Variable	B	S.E	β	t	R ²	F
CON.	1.506	.442		3.406		
ISV	-.123	.052	-.154	-2.344*		
EMV	.118	.050	.137	2.371*		
SCV	.011	.042	.017	.249		
IND	.117	.077	.087	1.520	.180	7.34**
COL	.400	.099	.240	4.027***		
EDU	.116	.035	.191	3.335***		
INC	.008	.051	.009	.153		
AGE	-.014	.055	-.014	-.247		

* $p<.05$, ** $p<.01$ *** $p<.001$

자녀가치 중 사회가치(SCV)와 문화성향 중 개인주의(IND), 개인특성 중 수입(INC)과 연령(AGE)은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양육참여의 하위요인인 사회정서지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p>.05$). 이러한 결과를 보면 도구적 가치가 높을수록 사회정서지원이 낮았으며, 정서적 가치와 집단주의,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정서지원이 높게 나타났다. 양육참여의 하위 요인 중 교육지원(EDS)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Table 5와 같다.

Table 5. Multiple Regression on EDS

Variable	B	S.E	β	t	R ²	F
CON.	1.472	.558		2.636		
ISV	-.165	.066	-.165	-2.496**		
EMV	.141	.063	.129	2.233**		
SCV	-.034	.053	-.043	-.628		
IND	.087	.097	.052	.897	.173	6.96**
COL	.316	.125	.151	2.523**		
EDU	.204	.044	.266	4.624***		
INC	.017	.064	.015	.270		
AGE	.025	.070	.021	.364		

* $p<.05$, ** $p<.01$ *** $p<.001$

위의 표에서 보면 양육참여 하위 요인 중 교육지원(EDS)에 도구적 가치(ISV)와 정서적 가치(EMV), 문화성

향 중 집단주의(COL), 개인특성 중 교육수준(EDU)이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치 중 사회가치(SCV)와 문화성향 중 개인주의(IND), 개인특성 중 수입(INC)과 연령(AGE)은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양육참여의 하위요인인 교육지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p>.05$). 이러한 결과를 보면 도구적 가치가 높을수록 교육지원이 낮았으며, 정서적 가치와 집단주의,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지원이 높게 나타났다. 양육참여의 하위 요인 중 공동양육지원(COS)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Table 6와 같다.

Table 6. Multiple Regression on COS

Variable	B	S.E	β	t	R ²	F
CON.	2.328	.557		4.180		
ISV	-.286	.066	-.288	-4.346***		
EMV	.116	.063	.107	1.846		
SCV	.112	.053	.144	2.096*		
IND	.158	.097	.095	1.636	.166	6.66**
COL	.122	.125	.059	.978		
EDU	.176	.044	.231	3.995***		
INC	-.012	.064	-.010	-.183		
AGE	-.101	.070	-.083	-1.456		

* $p<.05$, ** $p<.01$ *** $p<.001$

위의 표에서 보면 양육참여 하위 요인 중 공동양육지원(COS)에 도구적 가치(ISV)와 사회적 가치(SCV), 그리고 개인특성 중 교육수준(EDU)이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치 중 정서적 가치와 문화성향 그리고 개인특성 중 수입(INC)과 연령(AGE)은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양육참여의 하위요인인 공동양육지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p>.05$). 이러한 결과를 보면 도구적 가치가 높을수록 공동양육지원이 낮았으며, 사회적 가치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공동양육지원이 높게 나타났다. 양육참여의 하위 요인 중 자기성장지원(SFS)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Table 7와 같다.

Table 7. Multiple Regression on SFS

Variable	B	S.E	β	t	R ²	F
CON.	1.570	.676		2.323		
ISV	-.118	.080	-.103	-1.471		
EMV	.020	.076	.016	.256		
SCV	.036	.065	.040	.550		
IND	-.004	.117	-.002	-.038	.066	2.37*
COL	.386	.152	.162	2.541*		
EDU	.117	.053	.134	2.192*		
INC	.040	.077	.031	.515		
AGE	-.112	.084	-.080	-1.323		

* $p<.05$, ** $p<.01$ *** $p<.001$

위의 표에서 보면 양육참여 하위 요인 중 자기성장지원(SFS)에 문화성향 중 집단주의(COL), 개인특성 중 교육수준(EDU)이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치와 개인주의, 그리고 개인특성 중 수입(INC)과 연령(AGE)은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양육참여의 하위요인인 자기성장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p>.05$). 이러한 결과를 보면 개인주의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기성장지원이 높게 나타났다. 양육참여의 하위 요인 중 놀이문화지원(PCS)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Table 8과 같다.

Table 8. Multiple Regression on PCS

Variable	B	S.E	β	t	R ²	F
CON.	1.592	.546		2.919		
ISV	-.208	.064	-.211	-3.220***		
EMV	.247	.062	.230	4.013***		
SCV	.050	.052	.065	.963		
IND	.168	.095	.102	1.772	.187	7.68***
COL	.176	.123	.085	1.433		
EDU	.157	.043	.208	3.641***		
INC	.000	.062	.000	.002		
AGE	-.047	.068	-.039	-.689		

* $p<.05$, ** $p<.01$ *** $p<.001$

위의 표에서 보면 양육참여 하위 요인 중 놀이문화지원(PCS)에 도구적 가치(ISV)와 정서적 가치(EMV), 개인특성 중 교육수준(EDU)이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치 중 사회가치(SCV)와 문화성향 그리고 개인특성 중 수입(INC)과 연령(AGE)은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양육참여의 하위요인인 놀이문화지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p>.05$). 이러한 결과를 보면 도구적 가치가 높을수록 놀이문화지원이 낮았으며, 정서적 가치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놀이문화지원이 높게 나타났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녀가치와 문화성향이 자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자녀가치를 도구적 가치와 정서적 가치 그리고 사회적 가치로 나누고, 문화성향을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로 구분하여 선행변인으로 하고 양육참여와 양육참여의 5개 하위 요인을 후행변인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라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자녀가치 중 정서적 가치는 자녀양육 참여를 긍정적으로 높이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자녀가치 중 도구적 가치는 자녀양육에 대한 참여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자녀가치가 긍정적일 때 양육참여를 높이고 부정적일 때 양육참여를 줄인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기능을 하는 자녀를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는 도구적 가치로 인식할 때 양육에 대한 참여에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비해 아버지가 자녀와 성장을 함께하며 자녀의 정서나 감정을 수용하고 존중할 때 자녀와의 관계를 의미 있게 형성하고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즉, 아버지가 자녀의 가치를 높게 인식할수록 긍정적인 양육참여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부모가 자녀가치를 높게 인식하면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져 온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는 연구[21]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자녀가치와 양육참여를 연구한 다른 선행연구들도 자녀가치를 높게 인식하는 어머니는 자녀양육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보다 낮게 지각하게 되고 이러한 결과 효과적인 자녀양육을 한다고 지적한다[26]. 또 다른 연구는 자녀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어머니는 자신의 개인적 안위보다 자녀양육의 안위와 가치를 더 중요하게 지각한다고 제시한다[27]. 또한 정서적 가치와 양육스트레스를 다룬 연구도 자녀의 정서적 가치를 긍정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어머니는 그렇지 않은 어머니에 비해 양육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비록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결과이지만 자녀가치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확인해준다[28].

둘째, 아버지의 문화성향 중 집단주의가 일관성 있게 개인주의보다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정적인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이 결과는 아버지의 문화성향에서 집단주의 가치가 양육참여에 영향을 주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구성원으로서 역할과 공동 책임을 강조하는 집단가치가 자녀양육에 참여하는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비교할만한 선행연구가 미비하여 현재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이 결과는 집단주의 가치가 조직이나 집단의 특성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문화에 속한 사람의 행동에 문화가 주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우리 사회와 문화구성원의 가치가 오늘날 아버지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자녀 양육주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토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셋째, 아버지의 개인특성 변인으로 상정한 나이, 월수입 그리고 학력이 자녀양육참여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한 결과에서 보면 아버지의 학력만이 유의하게 자녀의 양육참여와 정적인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연령과 월수입은 양육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연령이 양육참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하지만[5], 다른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12]. 또한 양육참여에 월수입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일부 선행연구[5]와 일치하지만, 또 다른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다[12]. 아버지의 개인특성 중 양육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아버지의 학력이었다. 이 결과는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으로 공적인 학교교육이 자녀양육이나 태도에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오늘날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는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필요불가결한 과업으로 인식되어가고 있다. 부부가 공동으로 양육에 참여하는 것은 특히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양육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녀나 부모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과업이다[29,30]. 본 연구결과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정책과 제도의 수립이 아버지가 가정의 구성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역할의 수용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과 자녀의 삶에 대한 긍정적이고 본질적인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다. 자녀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생명체이며, 자녀가 내 소유나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가치의 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31,32].

시대의 변화는 시대의 변화는 자녀양육에 있어 배타적으로 어머니만의 양육이 아닌 공동양육이나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해 자녀가치와 문화성향만을 살펴보았으나, 차후 공동양육자로서 어머니와 관련한 변인, 그리고 아버지와 관련한 다양한 개인차 변인과 문화변인을 고려하는 연구가 계속된다며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지원하는 기초적인 자료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와 시사를 일반화하는데 나름의 제한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와 분석대상이 경기도 지역의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이기 때문에 제한점을 언급하지 않고 없이 본 연구결과의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추후 다양한 지역과 연령대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변인의 측정이 관찰이나 실험

등의 방법으로 획득된 것이 아니라 자기보고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나름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오류를 줄이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REFERENCES

- [1] H. S. Shim & K. H. Shin. (2018). The Effects of Father's Family-of-Origin Experiences on Parenting Attitude and Parenting Participation: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Value of Childre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1), 399-408
- [2] M. E. Lamb. (2004).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4th ed.), New York: Wiley.
- [3] S. Y. Son. (2013). A Study on TV Advertisements of Father Roles. *Korean Society of Basic Design & Art*, 14(5), 219-227.
- [4] Y. S. Han. (2006). The Relation of the Father's Play Participation and Child-Father Relationship, Child's Social Competence with the Types of Children's Play.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3(2), 189-212.
- [5] S. M. Ahn. K. Y. Lee & S. M. Lee. (2013). Fathers' Parenting Participation and Time.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7(2), 93-119.
- [6] J. J. Bigner. (1977). Attitudes toward fatherinf and father-child activity.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6, 89-106.
- [7] R. C. Barnett & G. K. Barch. (1987). Determinants of father's participation in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1), 9-40.
- [8] E. H. Joung & Y. S. Choi. (2013).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Birth Plan for Second Child and Second Birth for Married Women in Korea.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3(1), 5-34.
- [9] B. Lee & K. S. Lee. (2013). Relationships between fathers`s child-rearing involvement and young children`s playfulness/self-control ability.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22(3), 191-206.
- [10] E. W. Lindsay & Y. M. Caldera. (2006). Mother-father-child triadic interaction and mother-child dyadic interaction: Gender differences within and between contexts sex roles. *Journal of Research*, 55(7), 511-521.
- [11] J. M. Lee, E. H. Rho & Y. H. Kim. (2016). Korean Fathers' Parenting Styles,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Participation.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20(3), 331-346.
- [12] M. R. Chung, B. S. Lee & S. K. Park. (2013). Study on the Variables Related to Toddler's Father Involvement.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17(2), 449-469.
- [13] H. K. Kang. (2004). Parenting Stress of the Fathers with School-Aged Children by Participation in Child Care and Job Flexibility. *Korean Journal of Parent Education*, 1(1), 87-105.
- [14] R. H. Kang. (2001). The Fathers' care of Pre-school Children and Their Social Competence-A Comparison of single income families and double income families. *Korean Journal of Japen Education*, 5(1), 189-201.
- [15] M. R. Chung & S. K. Kang. (2013). The Relationship among Elementary School Parents' Experiences in their Family-of-origin, Value of Children, and Parenting Expecta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8(2), 177-202.
- [16] M. K. Kwon. (2011). Parenting Stress and Related Factors of Employed and Non-employed Mothers with Infants.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7(2), 19-41.
- [17] J. M. Kim & J. W. Han. (2016). The Actor Effect and the Partner Effect of Value of Chil-dren and Parenting Stress on Parenting Attitude of Parents in Childhood: Analysis of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2), 437-445.
- [18] K. E. Jahng & H. J. Lim. (2015). A study on the predictors of parenting responsibility of mothers with infants.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5(2), 49-71.
- [19] Y. E. Kwon. (2003).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Value of Children across Three generations: Comparative Analysis Adolescents, Mothers, and Grandmothers*. Doctoral dissertation. Inha University.
- [20] Y. E. Kwon & U. C. Kim. (2004). Value of Children and Fertility.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al*, 13(1), 211-226.
- [21] J. M. Kim & J. W. Han. (2016). The Actor Effect and the Partner Effect of Value of Chil-dren and Parenting Stress on Parenting Attitude of Parents in Childhood: Analysis of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2), 437-445.
- [22] G. Hofstede. (1982). *Culture's consequence: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Sage.
- [23] M. H. Lee. (2014).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Scales for Fathers having Young Children..* Doctoral dissertation. Gachon University.
- [24] T. M. Singelis, H. C. Triandis, D. P. S. Bhawuk & M. J. Gelfand. (1995).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Cultural Research*, 29, 240-275.
- [25] H. K. Park. (200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 Individualism-Collectivism, Client's Expectations of the Counselor's Role, and Therapeutic Factors with Group Counseling Participants*.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26] Y. J. Song, M. R. Lee & H. Y. Chun. (2014). Parenting Stress Changes in Both of Continuous Working and Non-Working Mothers After the Birth of Their First Child: A Focus on the Effects of the Values, Knowledge and Expectations about Their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5(5), 15-35.
- [27] K. E. Jahng & H. J. Lim. (2015). A study on the predictors of parenting responsibility of mothers with infants.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5(2), 49-71.
- [28] E. M. Yeon & H. S. Choi. (2015). Actor and Partner Effect of Infant-Parents' Emotional Value of Children, Parenting Stress, and Marital Satisfaction.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90, 79-109.
- [29] M. K. Kim. (2018). A Convergent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Adolescents' Mental Health of Multicultural Famil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1), 189-197.
- [30] M. S. Oh. (2015). A study on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on School Adjustment in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6(4), 197-203
- [31] K. S. Kim, K. S. Shin & H. M. Lee. (2017). The Effect of Positive and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on Adolescents' Smartphone Dependency in the Time of Convergence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oor Attachment.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4), 139-149
- [32] E. H. Lee & Y. J. Yang. (2018).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on Peer Attachment in Early Adolescents :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in Convergence Era.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2), 37-44

신 건 호(Shin, Keon Ho)

[장학]



- 1981년 2월 :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문학사)
- 1984년 2월 : 한양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 1988년 8월 : 한양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1988년 3월 ~ 현재 : 강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관심분야 : 사회발달, 인간관계
- E-Mail : khshin@kangnam.ac.kr